

올 가을 영암에서 F1 월드챔피언 가려진다

올 가을 한국에서 2012 F1 월드 챔피언의 운석이 가려진다. 영암 서킷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10월 12~14일)가 올 시즌 우승자를 가리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F1은 호주 그랑프리(지난 3월 16~18일)를 시작으로 중국, 스페인 모나코, 캐나다, 유럽,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지를 돌며 모두 20라운드를 치른다. 매 라운드마다 우승자를 가리고 1위 25포인트, 2위 18포인트, 3위 15포인트, 4위 12포인트, 5위 10포인트 등을 준다.

이 포인트를 종합해 최종 월드 챔피언을 가리게 되며, 지금까지 종합 순위는 1위 알론소(194포인트), 페텔(165포인트), 라이코

넌(149포인트), 해밀턴(142포인트), 웨버(133포인트) 순이다. 1~2위 격차가 29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일본 그랑프리(10월 5일~7일)에서 페텔이 점수 차이를 좁힌다면 한국대회에서 역전이 가능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한국대회에서는 첫 한국대회 우승자였던 알론소, 2회 대회 우승자 페텔과 더불어 핀란드의 라이코넨, 영국의 해밀턴, 호주의 웨버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1~2회 한국대회 우승자들이 다시 한 번 한국에서 월드챔피언을 놓고 격돌하는 셈이다.

현재까지는 알론소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점쳐지지만 페텔과 라이코넨, 해밀턴 등의 추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해밀턴은 지난해 이탈리아 그랑프리 대회까지 단독 2위

1~2위 격차 29포인트 차이... 종합순위 다툼 한층 치열

10월12~14일 코리아그랑프리, 박진감 넘치는 경기될 것

를 차지했으나 싱가포르 대회에서 레이스 시작 이후 22바퀴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기어박스 고장으로 불운의 리타이어를 당해 4위로 밀려났다. 또 라이코넨은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경험은 없지만 2007년 종합 챔피언에 오르는 등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웨버도 올해 모나코 그랑프리, 영국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 코리아 그랑프리에서는 3위를 기록했었다.

알론소가 일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한국 대회마저 석권한다면 안정적으로 남은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혼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

올 시즌 F1은 춘추전국시대였다. 14개 대회에서 7명의 드라이버가 시상대 최상단에 올랐다.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며 알론소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알론소는 지난 23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스트리트 서킷에서 열린 14라운드 싱가포르 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3위를 차지했지만 2위와 격차는 더 벌어졌다. 종전에 2위를 달리던 루이스 해밀턴이 머신 이상으로 기권하면서 4위로 떨어졌다.

알론소는 올 시즌 해밀턴과 함께 가장 많은 3차례 우승(말레이시아·스페인·독일)을 차지했다. 동시에 첫 바퀴에 사고가 난 뺑끼에 대회를 제외하고 모두 완주하며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하지만 알론소는 지난 2007년 라이코넨에게 시즌 종합 우승을 내준 쓰러린 기억도 있다.

올 시즌 F1은 한국 대회를 그랑프리 포함해 모두 6번 남아있다. F1 전문가들은 남은 대회에서 페텔의 활약 여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승을 거두며 완벽에 가까운 드라이빙을 선보인 페텔은 역대 3번째 3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F1 역사상 3회 연속 우승은 1954~1957후안 마누엘 판지오, 2000~2004 미하엘 슈마허가 달성했다.

이번 한국 대회에 참가하는 24명의 드라이버 중 챔피언 기록을 가진 드라이버는 페텔, 슈마허, 라이코넨, 알론소, 해밀턴, 버튼 등 6명이다. F1 역사상 6명의 타이틀 소유자가 한 번에 달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이번 한국대회는 첫 관중 15만명 돌파 여부도 관심사다. 첫 시즌 관중 9만명, 지난해 시즌 12만명을 동원하며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올해는 15만명 이상이 영암 그랑프리 서킷을 찾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F1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가장 많이 지켜보는 3대 스포츠 이벤트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열린 F1 코리아그랑프리 결승전



아는만큼 보인다

타이어 내구성 약해지고 접지력 강해졌다

교체빈도 늘어나 승부 큰 영향

추월 방해 제한 순위다툼 치열

아는 만큼 더욱 즐겁고 흥미로운 스포츠가 바로 F1이다. 특히 F1은 매 시즌마다 규정과 머신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규정 변화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 시즌은 지난해에 비해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다. 먼저, 뒷타이어 접지면이 지난해보다 평평해졌고 고무 소재도 부드러워져

내구성은 약해진 대신 접지력이 강해졌다. 이 때문에 F1의 모미인 타이어 교체 빈도가 늘어나 팀마다 피트 스톱(Pit Stop) 전략이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블로킹 라인에 관한 규정도 바뀌어 추월

을 더 쉽게 했다. 주행 중 뒤따르는 머신의 추월을 막는 블로킹을 할 때 한 차례만 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원 무브(One Move) 규정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코너에서 코너 사이의 직선로 기준으로 블로킹을 위해서는 라인을 한 번만 바꿀 수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며 후속 머신의 추월을 막는 행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추월을 시도하는 쪽이 유리해졌다.

세이프티카 규정도 조금 바뀌었다. 서킷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등에 발령되는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추월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다. 하지만 선두에 한 바퀴 이상 뒤진 머신에 한해 세이프티카를 앞질러 자기 순위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했다. /오광복기자 kroh@



온라인 경품 이벤트

F1 티켓 구매하면 '자동차·스마트폰' 행운이

'옥션티켓' 예매자 대상

10월 10일 당첨자 발표

"F1 티켓 온라인 구매하면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혜택이 쏟아져요."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F1 코리아 그랑프리 가 화끈한 경품 이벤트를 통해 본격적인 불 조성에 들어간다.

F1조직위는 오는 10월 9일까지 1달 동안 F1 코리아 그랑프리 온라인 경품 이벤트를

개최한다. 하반기 국내 유일의 스포츠 빅 이벤트인 F1 코리아 그랑프리 성공 개최를 위하여 티켓 구매가 집중되는 이 기간, 대규모 온라인 경품 이벤트를 통해 본격적인 관중 몰이에 나선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티켓 구매 사이트인 '옥션 티켓'에서 예매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6명을 경품을 준다.

옥션 티켓에서 F1티켓을 구매한 관람객은 준중형 자동차 1대, 최신형 스마트폰, 대명비발디파크 스키시즌권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경품과 F1 홍보대사인 싸이의 '강남스타일' 싸이 CD를 받을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행사기간 중 '옥션 티켓'에서 F1 티켓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0일에 F1 홈페이지(http://www.koreangp.kr) 및 옥션티켓에 공지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SMS 전송 및 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품은 10월 10일에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결실의 계절과 함께 찾아온 한가위!
모든 분들 가슴마다 정겨운 추석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고향길 잘 다녀 오십시오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하여 함께합니다.

klja
Korean Lifelong Educ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발전협의회
한국예술종합평생교육원
이사장 서 동 균